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報 道 資 料
[2012. 4. 4.]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전화번호	042-481-4981 042-481-4982
담 당 자 (e-mail)	임병천(ibc1000@ocp.go.kr) 이종규(hans07kyu@ocp.go.kr)	F A X	042-481-499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게재

‘경주개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우리나라 토종개인 ‘경주개 동경이(東京狗)’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개 동경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동경잡기(東京雜記) 등 옛 문헌을 통해서 경주지역에서 널리 사육되었던 개로 알려졌고, 신라고분에서 토우(土偶)로 발굴되는 등 그 역사와 문화 가치가 크다. 현재 경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경주개 동경이는 단미(短尾・꼬리가 짧음)・무미(無尾・꼬리가 없음)를 특징으로 하는 문헌 기록과 일치하고, 유전자 분석결과 한국 토종개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는 품종 고정화 작업을 거친 동경이 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자체 사양관리규정에 따라 이력관리, 질병관리, 번식관리, 혈통관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 토종개는 ‘진도의 진도개’(천연기념물 제53호)와 ‘경산의 삽살개’(천연기념물 제368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경주개 동경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붙임 1.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개요 1부.
2. ‘경주개 동경이’ 관련 참고자료 1부.
3. 사진자료 1부. 끝.

(붙임 1)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개요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지정명칭 : 경주개 동경이(東京狗)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65번지 서라벌대학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사육시설 내

○ 지정 예고 사유

- 경주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이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동경잡기(東京雜記) 등 옛 문헌에 자주 등장하였고, 신라고분에서 토우(土偶)로 발굴되는 등 그 역사와 문화 가치가 크며,
- 단미(短尾)·무미(無尾)를 특징으로 하는 문헌 기록과 외형적으로 일치하고, 유전자 분석결과 한국 토종개에 속하는 고유의 견종으로 밝혀져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큼.

○ 문화재관리단체 :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붙임 2)

‘경주개 동경이’ 관련 참고자료

□ 역사적 의의 및 사육지역

○ 경주개 동경이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경구라는 이름이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동경잡기(東京雜記)』(1669년), 동경구의 외형적인 형태를 기록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19세기) 등 10여 편의 고문헌 기록과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개 토우 유물 등에 의해 경주개 동경이는 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육된 토종개임.

○ 경주 부윤 민주면이 저술한 동경잡기(東京雜記, 1669년), 증보문헌비고, 임하필기 등에 “동경(고려시대의 경주의 옛 지명)에는 꼬리 짧은 개가 많이 태어난다“ 라는 문헌기록과 20세기에 발간된 국어 대사전(이희승, 1982, 삼성, 한국어 사전편찬회) 등에도 ”동경이(동경개)는 옛날 경주 지방에 많았다는 개를 지칭한다”라는 사전적 기록과 꼬리 짧은 개 토우 발굴 지역 등으로 보아 동경이(東京狗)의 서식 및 사육 지역은 경주 주변지역으로 고증됨.

□ 외형 및 유전형질

<고증적 외형>

○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은 ①5~6세기 신라고분군에서 출토된 개토우의 외형과 ②동경잡기 卷1風俗 女子北髻 편의 쪽머리 형태(북계)와 같은 단미를 하고 있다는 기록과 ③삼국사기,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장자구(노루새끼), 녹미구(사슴꼬리)에 관한 기록 등의 고증자료를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기준으로 삼았고, 또 ④1930~1940년대 서울대 규장각에 유리원판 사진으로 소장하고 있는 학성관 종루 앞에서 찍힌 꼬리 짧은 개를 체형의 기본으로 삼음.

<유전형질>

○ 경주개 동경이는 현재 5대까지 번식이 이루진 상태이며, 유전형질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학적 검사(혈구검사, 혈청 화학적 검사 등) 실시

○ 경주개 동경이와 토종개(진도, 삽살, 풍산, 불개)의 유연관계 계통수(Phylogenetic tree showing the genetic relationship)를 작성한 결과 동경이는 안정된 유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 표준유전거리(Standard genetic distance)와 최소유전적거리(Minimum genetic distance)를 각각 UPGMA, NJ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경주개 동경이는 한국 토종개 그룹에 속하며, 진돗개와 가장 가까운 유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돗개와는 전혀 다른 고유의 견품종임을 알 수 있음.

□ 품종표준의 확립

○ 황남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 파편의 개 토우와 1930-40년대 울산 학성관 종루 앞에서 찍힌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역사적 사실로 하여 품종표준 기준을 마련함.

○ 경주개 동경이의 표준품종 기준은 1차적인 선별을 거쳐 표준화된 사양관리 기준에 따라 사육한 73마리와 계통 번식하여 생산된 개체를 대상으로 세계 품종표준 분류에 따라 품종표준 기준을 확립함.

□ 군집규모 및 사육

○ 경주개 동경이는 서라벌대학 애견테마파크 번식장과 일반 사육농가, 경주 양동마을(경주시 지정 동경이 사육마을), 1차 분양농가, 2차 분양농가, 3차 분양농가 등 56농가에서 등에서 백구 218두, 황구 50두, 흑구 22두, 호구16두 등 '12. 3월 현재 총 306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사양관리

○ 경주개 동경이의 사양관리는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의 사양관리 규정에 의하여 사양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전 개체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및 혈액학적 혈구 및 화학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진단, 병성감정, 영양장애 등 사양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사육농가의 정기적인 사양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함.

○ 품종표준 관리를 위해 방사선 촬영, 표준 체형조사를 실시하여 품종 표준 확인과 도태 및 번식중지 대상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함.

□ 연구관리

○ 경주개 동경이는 서라벌대학 경주개동경이보전연구소 연구팀에 의해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박사학위논문 2편, 외국 학술대회, 애완동물학회, 수의학회, 임상수의학회 번식학회 발표, 동경이를 활용한 동물매개 심포지엄 등 30여 편을 학술지에 발표함.

○ "경주개 동경이의 기원과 품종 특성에 관한 연구"의 박사학위 논문(대구대학교 축산학 박사학위)에서 "경주지방 토종개 동경이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혈통보존 시스템 개발"의 박사학위 논문(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박사학위)에 의해 한국토종개(진도개, 삽살이, 풍산개)와의 유전학적 거리를 분석한 결과 경주개 동경이는 한국 토종견과 유전학적으로 매우 가깝고 혈통학적으로 매우 다른 한국 토종견종으로 확인됨.

(붙임 3)

사 진 자 료

< 경주개 동경이 백구 >

< 경주개 동경이 호구 >